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부자와
가난한자



저자: Edward Hughes

삽화: Alastair Paterson; M. Maillot; Lazarus

각색: M. Maillot; Sarah S.

번역: Helen Hwan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20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예수님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자와 가난한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없는 부유함이 소용없음을 가르치셨지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돈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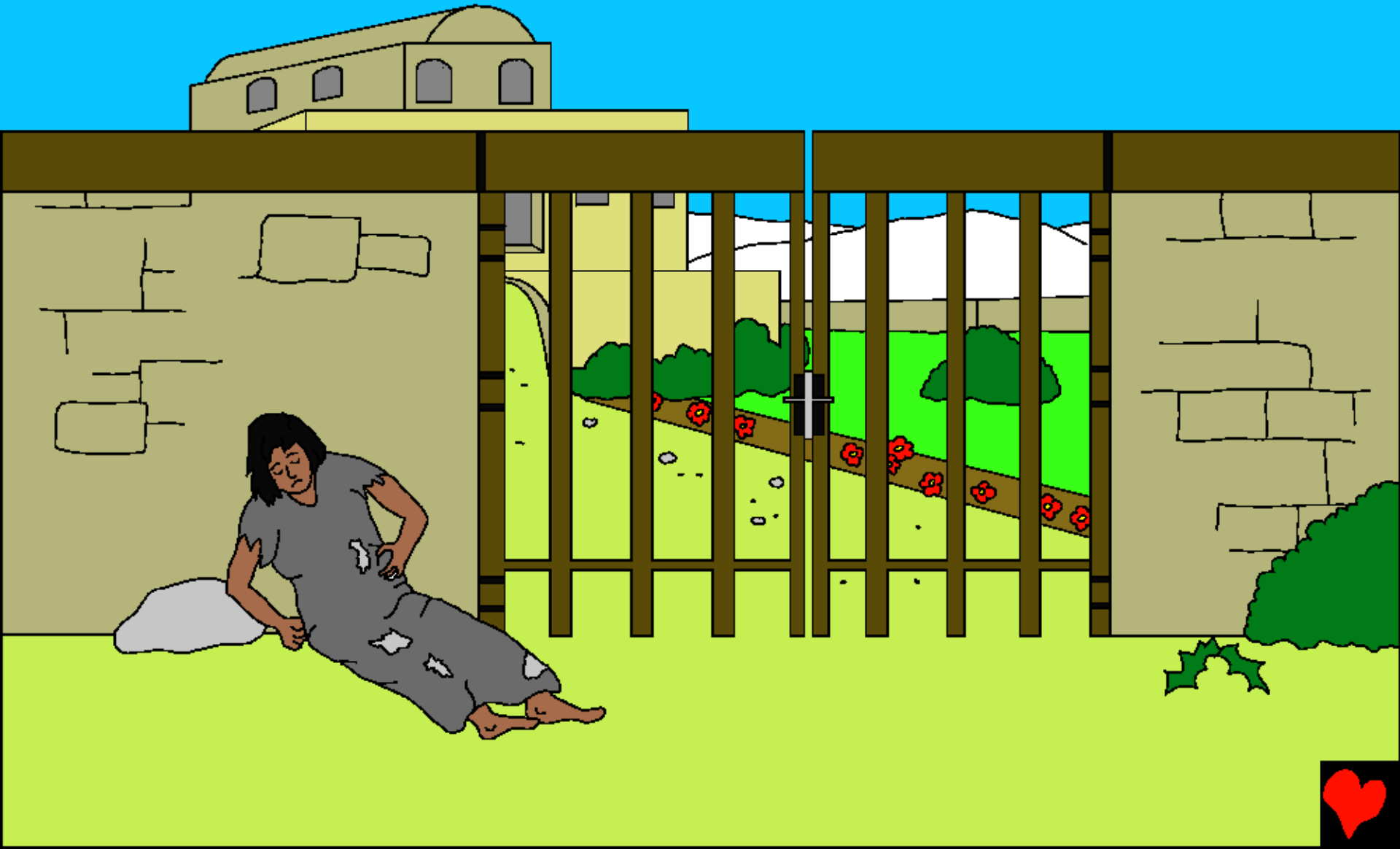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아주 값비싸고
화려한 옷들로 왕처럼
단장하고 살았지요.



그리고, 이 부자는 매일 잔치상처럼 차려진 식사를 하였어요.
그는 돈이 엄청 많아서 세 끼 식사 뿐만 아니라 간식까지
먹고 싶은 것은 다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부잣집 대문 곁에는 가난하고 병들어 굶주리는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지요.



불쌍한 나사로는 온 몸이 병에 걸려
고름과 염증으로 덮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해 타박상과
상처투성이었지요. 물론 우유, 야채,
고기와 같이 좋은 음식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그는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실컷 먹기를
간절히
바랬지요.



심지어
지나가는
개들이 이
무기력한
거지를 향해
짓고 아픈
상처들을
핥았어요.
아무도
나사로가 굶어
죽어간다는
것을 신경쓰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날
아침, 나사로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외롭고
굶주렸던 이
거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게 웬 일인가요?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한 순간부터 너무나 행복했어요.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받아들여
올라갔지요. 나사로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머지않아 부자도 또한 죽었어요. 그의 재산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는 못했지요. 누구도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으니까요.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 후에 좋은 곳에 장사되었지요.
사람들은 그가 영리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나 그 칭찬도 잠깐일 뿐이었고,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말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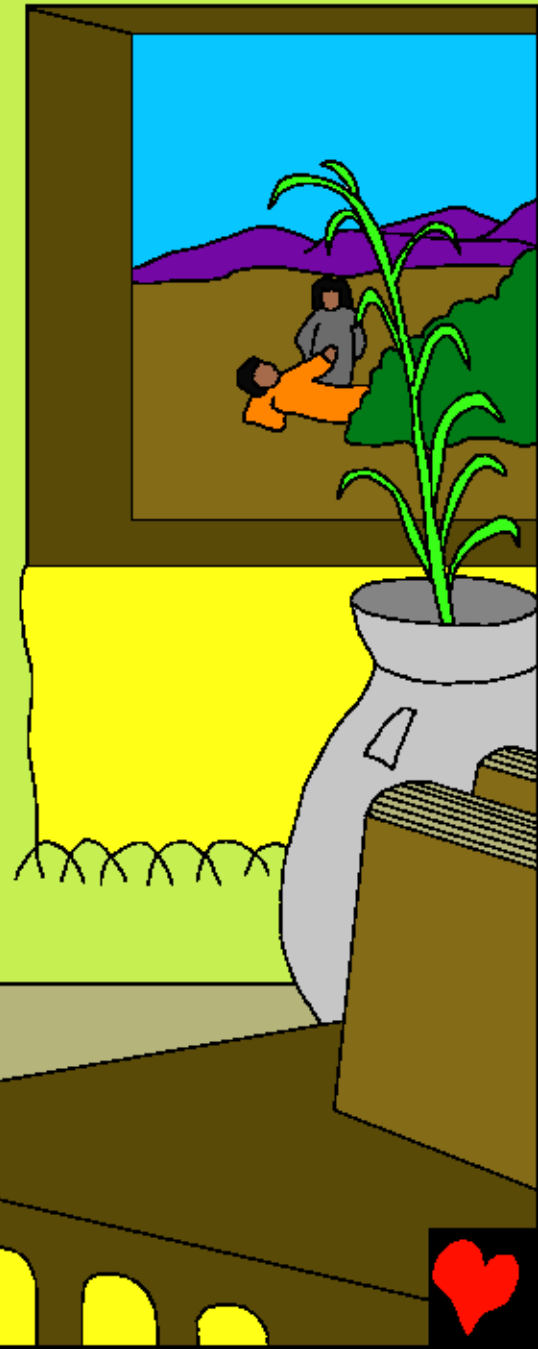
부자는 지옥에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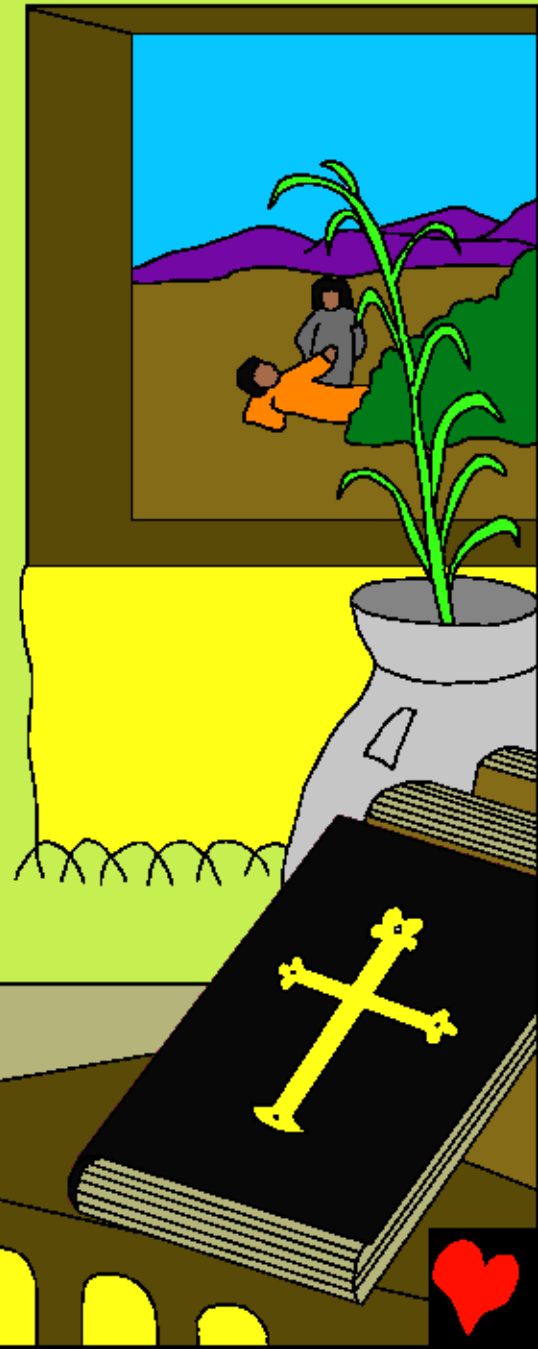
이에 아브라함은 대답하였지요.
"너는 생시에 모든 것을 가졌었고
나사로는 아무 것도 없었다.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네가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아무도
건너 올 수 없단다."



부자는 다시 간청했어요. “그럼 나사로를
내 다섯 형제들에게 보내 그들이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하게 하소서.”



“너의 형제들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성경을 참으로 믿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설득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답변했어요.



예수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마쳤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돈과 하나님 중에 어떤 것을 더 사랑하지?'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부자와 가난한자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 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